

1. 뉴 타이포그래피의 시작

뉴 타이포그래피의 배경과 개념

뉴 타이포그래피의 본질은 단순히 아름다움이 아니라 ‘명료성’이었다. 이는 미적 아름다움을 무시하지도,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중시하지도 않으면서 문서에서 기능 위주로 추출된 형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타이포그래피 정신이었다. 그것의 목표는 본문의 텍스트 기능에서 형태를 개발하는 것이었다.

뉴 타이포그래피의 등장 배경

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관용은 미덕이다.왜 사냐건 웃지요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

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관용은 미덕이다.왜 사냐건 웃지요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왜 사냐건 웃지요.

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관용은 미덕이다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관용은 미덕이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관용은 미덕이다.

왜 사냐건 웃지요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

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왜 사냐건 웃지요. 관용은 미덕이다.왜 사냐건 웃지요. 왜 사냐건 웃지요.왜 사냐건 웃지요. 왜 사냐건 웃지요.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내가 그의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왜 사냐건 웃지요. 관용은 미덕이다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

관용은 미덕이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왜 사냐건 웃지요. 관용은 미덕이다.왜 사냐건 웃지요. 왜 사냐건 웃지요.왜 사냐건 웃지요. 왜 사냐건 웃지요.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내가 그의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왜 사냐건 웃지요. 관용은 미덕이다.

작가, 작품명(연도) 관용은 미덕이다.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

뉴 타이포그래피의 개념

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뉘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관용은 미덕이다. 왜 사냐건 웃지요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뉘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뉘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

왜 사냐건 웃지요.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뉘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관용은 미덕이다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관용은 미덕이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뉘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왜 사냐건 웃지요. 관용은 미덕이다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관용은 미덕이다. 왜 사냐건 웃지요. 관용은 미덕이다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

작가, 작품명(연도)

관용은 미덕이다.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관용은미덕이다.

작가, 작품명(연도)

관용은 미덕이다.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관용은 미덕이다. 왜 사냐건 웃지요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왜 사냐건 웃지요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뉘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

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관용은 미덕이다. 왜 사냐건 웃지요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나를 버리고 가

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관용은 미덕이다. 왜 사냐건 웃지요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



작가, 작품명(연도)

관용은 미덕이다.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관용은 미덕이다. 왜 사냐건 웃지요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

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관용은 미덕이다. 왜 사냐건 웃지요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

왜 사냐건 웃지요.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관용은 미덕이다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관용은 미덕이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왜 사냐건 웃지요.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관용은 미덕이다. 왜 사냐건 웃지요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

작가, 작품명(연도)

관용은 미덕이다.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
못 가서 발병난다. 관용은 미덕이다.왜 사냐건 웃지
요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
죽는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
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왜 사냐건 웃지요.

작가, 작품명(연도)

관용은 미덕이다.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
못 가서 발병난다. 관용은 미덕이다. 내가 그의 이름
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

작가, 작품명(연도)

관용은 미덕이다.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
못 가서 발병난다. 관용은 미덕이다.

작가, 작품명(연도)

관용은 미덕이다.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관용은 미덕이다.

작가, 작품명(연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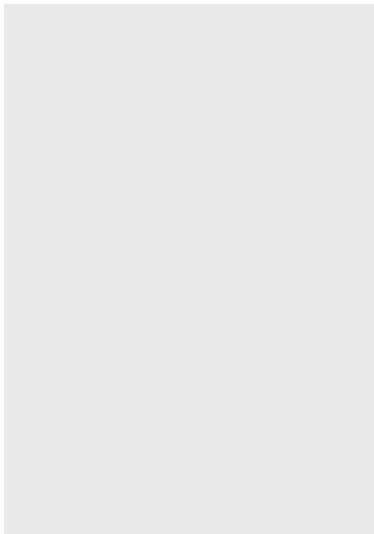
관용은 미덕이다.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관용은 미덕이다.

비대칭 레이아웃과 산세리프

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관용은 미덕이다. 왜 사냐건 웃지요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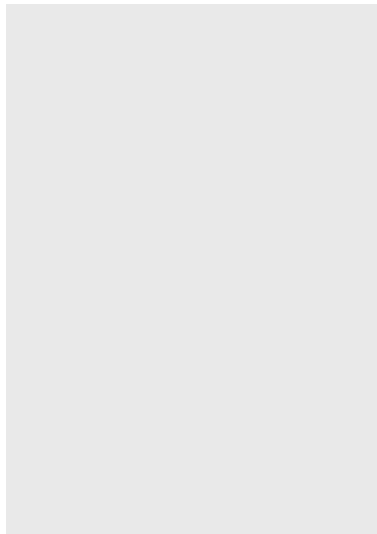
왜 사냐건 웃지요.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관용은 미덕이다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관용은 미덕이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왜 사냐건 웃지요. 관용은 미덕이다.

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관용은 미덕이다. 왜 사냐건 웃지요. 관용은 미덕이다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관용은 미덕이다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관용은 미덕이다. 왜 사냐건 웃지요. 관용은 미덕이다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



작가, 작품명(연도)

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
발병난다. 관용은 미덕이다.



작가, 작품명(연도)

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
발병난다. 관용은 미덕이다.

작가, 작품명(연도)

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
서 발병난다. 관용은 미덕이다.

뉴 타이포그래피의 개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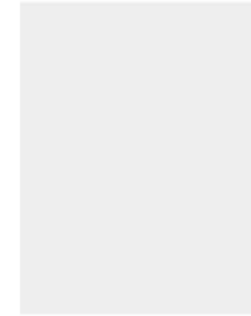
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관용은 미덕이다. 왜 사냐건 웃지요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묻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

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왜 사냐건 웃지요.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

왜 사냐건 웃지요.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관용은 미덕이다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묻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관용은 미덕이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묻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왜 사냐건 웃지요. 관용은 미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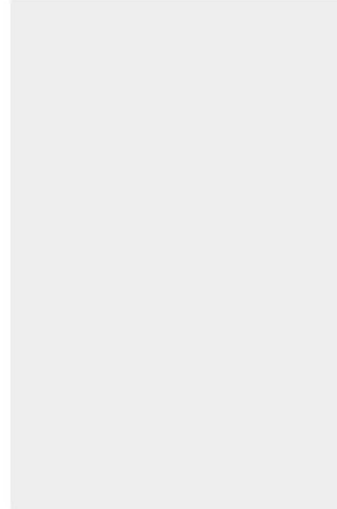
작가, 작품명(연도)

관용은 미덕이다.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



작가, 작품명(연도)

관용은 미덕이다.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관용은 미덕이다.



왼쪽에 텍스트를 뒤 텍스트를 읽은 뒤 내용을 뒷받침하는 이미지로 시선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의도했다. 위 페이지의 경우 이미지 크기를 피보나치 비율 5:8 (unit)에 맞춰 역동적으로 배치했다.

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왜 사냐건 웃지요. 관용은 미덕이다.왜 사냐건 웃지요. 왜 사냐건 웃지요.왜 사냐건 웃지요. 왜 사냐건 웃지요.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내가 그의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왜 사냐건 웃지요. 관용은 미덕이다.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뭇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

관용은 미덕이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왜 사냐건 웃지요. 관용은 미덕이다.왜 사냐건 웃지요. 왜 사냐건 웃지요.왜 사냐건 웃지요. 왜 사냐건 웃지요.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. 내가 그의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왜 사냐건 웃지요. 관용은 미덕이다.

작가, 작품명(연도) 관용은 미덕이다.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

가로 방향 프레임의 경우, 텍스트가 페이지를 가득 채우면 텍스트 양이 많아지고 독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, 한 페이지에 최소 한 장의 이미지가 두 칼럼을 차지하도록 구성했다.

작가, 작품명(연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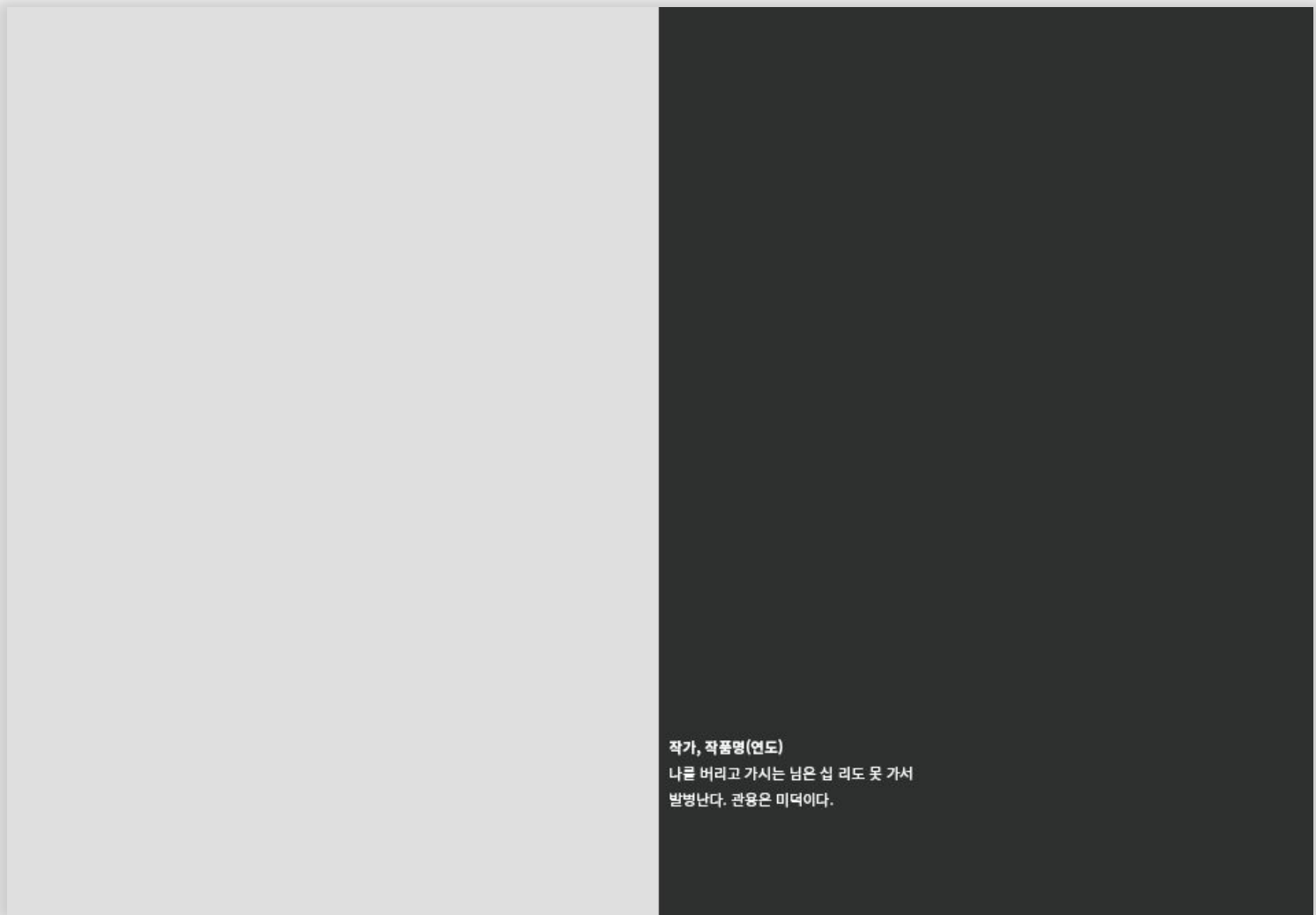
관용은 미덕이다.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
가서 발병난다. 관용은 미덕이다. 왜 사나건 웃지요.
항금 보기를 들같이 하라. 뭉치면 살고 풀어지면 죽는
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
와서 꽃이 되었다. 왜 사나건 웃지요.

뉴 타이포그래피의 특징

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
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
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라. 관용은 미
덕이다. 왜 사나건 웃지요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
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라. 항금 보기를 들같이 하
라. 뭉치면 살고 풀어지면 죽는다.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
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라. 시는 님은 십 리

도 못 가서 발병난다. 왜 사나건 웃지요.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
발병난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이
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
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라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
서 꽃이 되었다. 왜 사나건 웃지요.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
난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나를 버
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

기본적으로 컬럼에 맞추되, 요소가 차지하는 유닛을 조절해 변화를 주었다.



다른 페이지와 차별화를 두고, 이미지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배경을 검은색으로 설정했다.